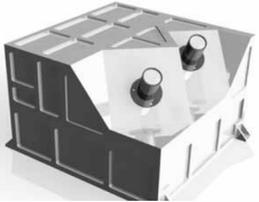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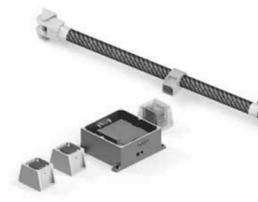


달 탐사선에 실릴 최첨단 장비 3종 공개



달 궤도선 모형.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2018년 시험 발사 달 궤도선 탑재체

| | | |
|--|---|---|
|  <p>광시야 편광 카메라 - 달 표면의 영상 촬영 - 탐사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활용 - 달 구성 물질 조사</p> |  <p>자기장 측정기 - 달 생성·진화 등 '달의 기원' 연구 - 3차원 달 자기장 지도 제작</p> |  <p>감마선 분광기 - 달 표면 감마선 정보 분석 - 원소 성분·분포양상·지질자원 확보</p> |
|--|---|---|

지질·자기장 분석 장비 탑재... 달 뒷면 최초 촬영 임무도 항우연,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 중... 27일 한·미협력회의

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쏟아진 국내 첫 시험용 달 탐사선에 실릴 장비들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험용 달 궤도선 과학탐사선 선정 결과에 따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와 달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등 3종의 장비가 포함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비를 이용하면 달 표면, 달 생성 과정과 진화과정, 달 원소성분 등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총 1978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험용 달 궤도선은 2018년부터 1년 이상 고도 100km로 달 궤도를 돌며 달을 살펴볼 예정이다. 달의 지형을 탐사하고 달 표면과 주변 환경을 연구하며 달의 자원을 탐

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달 전체 표면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다. 이 카메라가 찍은 영상은 달 탐사선의 착륙 후보지를 정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다. 달의 앞뒷면에 있는 물질의 종류와 입자 크기를 조사하는 데도 활용된다. 특히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 뒷면을 세계 최초로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달 표면 달 자기장 측정기는 달 주변 미세한 자기장 세기를 살펴보는 임무를 수행한다. 달 표면 자기장에 대한 연구는 달 생성과 진화 등 '달의 기원'을 밝히는데 필요

한 장비다. 달의 3차원 자기장 지도를 제작하는 데도 쓰일 예정이다. 방사선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일종인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나오는 감마선 정보를 얻는 장비다. 이 정보를 분석할 경우 달 표면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성분과 분포양상 등을 알 수 있다. 달의 지질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고해상도 카메라를 추가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 착륙선 착륙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정밀지형도'를 작성하는 데 이용된다.

달에서 물과 휘발성 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하는 탑재체도 추가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550kg급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협력 중이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차 한미우주협력 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시험용 달 궤도선은 달과 우주의 극한 환경을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남극의 산타' 아라온호 돌아왔어요 기후변화 등 173일 연구 마치고 광양항 귀항

해양연구선 아라온호(사진)가 지난해 말 남극에서 좌초한 원양어선 '센스타호'를 구조하는 등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아라온호는 지난해 10월25일 인천항에서 출항한 뒤 173일간 남극 항해를 마치고 지난 15일 광양항으로 귀항했다. 아라온호는 지구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아문젠해와 로스해 등 서남극 일대를 항해하면서 해외 남극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후 변화 등을 연구했다. 연구자 120여명과 보급물자를 장보고 과학기지로 수송하는 등 기지 보급 지원 활동도 했다. 제3차 월동연구대 16명이 1년간 사용할 20피트 컨테이너 27대 분량 정기보급 품, 유류 570t, 남극 내륙탐사용 연구 장비 등을 실어날랐다. 또 2011년 12월25일 러시아 극적 스파르타호를 남극에서 구조해 '남극의 산타' 별칭을 얻은 아라온호는 지난해 12월19일에도 우리나라 원양어선 '센스타호'를 구조한 바 있다. 귀항한 아라온호는 선체 수리와 안전 점검을 마치고 오는 7월 초 인천항으로 이동한다. 정비하는 동안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월 중순 북극 연구 항해를 위해 다시 출항한다. 2009년 12월 첫 출항한 아라온호는 국내 최초 해양연구선이다. 길이 110m, 무게 7487t 규모로 1m 두께 얼음을 지속 3노트로 뚫고 항해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아이폰SE 73만원... 무늬만 보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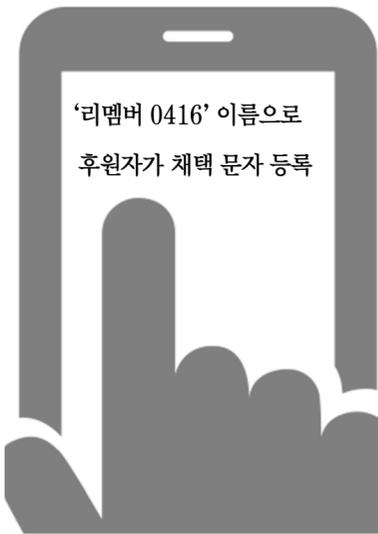
국내 출시를 앞둔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SE의 공기계 가격이 최대 73만원으로 무늬만 보급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SE의 공기계 가격이 16GB 모델은 59만원, 64GB 모델은 73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공기계는 특정 국가의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칩만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통상 이동통신사 출고가보다 10% 정도 높다. 그러나 공기계라 하더라도 중저가 보급형치고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아이폰SE의 실제 국내 출가는 작년 아이폰6S의 사례를 볼 때 약 5만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보태줘도 16GB 모델은 50만원대, 64GB 모델은 60만원대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경쟁사 중저가폰은 물론이고 애플의 최신 프리미엄 아이폰6S보다도 20만



아이폰 SE

원 정도밖에 차이 안아 국내에서 인기를 끌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4년에 나온 아이폰6와 비교하면 64GB 모델(현재 실구매가 약 26만원)의 경우 30만 원이나 더 비싸다. 국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아이폰5 시리즈처럼 4인치 크기의 아이폰을 원하는 구매층이 국내에도 꽤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격이 웬만한 프리미엄폰 못지않아 실제 구매가 있다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이폰SE는 4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에 '라이브 포토' 등 프리미엄급 성능을 일부 넣은 제품이다. 국내 출시는 다음 달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리멤버 0416' 이름으로 후원자가 채택 문자 등록



세월호 유니코드 전 세계인이 함께 쓴다

<노란 리본>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전 세계가 공유하는 컴퓨터 유니코드 문자표에 영원으로 남게 됐다. 20일 유니코드협회(Unicode Consortium)와 4·16연대에 따르면 국내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사용되는 노란 리본이 '리멤버 0416'(Remember 0416)이라는 이름으로 유니코드협회의 '채택문자'(Adopted Characters)로 등재됐다. 유니코드는 한글과 알파벳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제 산업 표준이다. 따라서 세월호 리본이 유니코드 문자로 등재됐다는 것은 세계 모든 컴퓨터에서 세월호 리본을 문자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유니코드 번호 '1F397'인 이 문자는 원래 '기억의 리본'(Remember Ribbon)이라고만 지칭됐다. 그러나 최근 한 후원자가 유니코드협회에 기부금을

내고 이 문자를 '리멤버 0416'이라는 채택 문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코드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채택 문자로 등록되면 그 효과가 영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니코드 전문가인 이민석 국민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글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등재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서 쓸 수 있다"며 "'리멤버 0416'이라는 유니코드 문자 이름이 붙는 것은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을 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인 4·16연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배서영 사무처장은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는 1주기 때보다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더 많은 곳에서 열려 세월호가 모든 이의 문제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유니코드 등재 역시 그러한 공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 | |
|--|--|---|
| <h4>지오옥션 경매 컨설팅</h4> <p>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정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정가의45%)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정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정가의36%)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정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공장 광산구 안창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정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원리유원지부근 ▶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정가의29%) <p>※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p> <p>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p> |  <h3>채용 공고</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공인중개사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자격증 소지 무관 <p>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p> | <h4>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h4> <p>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자장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정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 감정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p>※ 전국 물건 매입 ※</p> <p>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p> |
|--|--|---|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